

##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금장식 기법의 유형과 특성

장현주\* · 고순희\*\*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lden Decoration Technique used in the Costumes of Chosun Dynasty Era

Hyun-Joo Jang\* · Soon-Hee K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e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12. 21 토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lden decoration technique out of various techniques of expressing patterns on the costumes. This study reviews both costumes decorated with gold in the relics of Chosun dynasty and literatures focused on domestic and Chinese documents and records.

The types of decoration technique using gold include *JigGeum* (brocade technique), *InGeum* (gold powder and flake attaching technique), and *GeumSaJaSu* (embroidery technique). The *JigGeum* is weaved using golden thread instead of silk thread in order to express patterns. The *InGeum* technique is to attach gold or silver powder or thin gold or silver flake on the surface of the fabric. The *GeumSaJaSu* technique is to embroider with gold thread on fabrics.

82 pieces of costumes made using gold in Chosun dynasty era are analyzed. The results follow;

In terms of types of technique, is shown to take the majority; *JigGeum* (43.90%), *InGeum* (30.49%), *GeumSaJaSu* (25.61%).

Looking at the patterns used by the types, plant pattern and letter pattern are mostly used for both the *JigGeum* and the *InGeum*.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by their uses, the *InGeum* is used for court dresses (52%). It is also used for ordinary dresses (12%) and for other purposes (36%). It is mostly used in the court dress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era. The *JigGeum* is used for ordinary dresses (47.22%), for court dresses (44.44%) and for other purposes (8.34%). It is evenly used for court dresses and ordinary dresses.

Key words: golden decoration technique(금장식기법), *InGeum*(인금), *JigGeum* (직금), *GeumSaJaSu*(금사자수)

## I. 서론

화려한 광채를 가진 금은 예로부터 암흑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광명을 뜻하며 재력과 권력을 상징해 왔다. 이것은 또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며 살림살이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동, 서양의 유목민족에게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재화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이 가진 각종 금장신구에 시대의 생활감각 및 예술감각을 표현해 왔다<sup>1)</sup>.

이와 같은 장식성과 상징성을 지닌 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금관총, 금령총 등 왕실의 무덤에 금의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으며 관모를 비롯하여 관식,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신, 허리띠 등 최고의 권력자인 왕실에서 사용한 장신구에 금으로 장식한 예가 많다. 이러한 금장신구는 지배층이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하며 신분이나 지위가 다름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금장신구는 세금세공, 영락식, 소원배식, 도금, 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게 장식되었다.

금은 복식에도 신분표시 및 장식을 위해 이용되었는데 복식에 금을 사용하거나 규제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 금제조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라 복식에 이미 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우리나라 궁중왕실에서는 왕가의 권위를 표현하고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 및 문양으로 의복에 장식하였다.

그리고 금을 이용하여 표현한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문양은 복식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식기법은 현대복식의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유물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금을 사용한 장식기법의 유형을 살펴본 후 이것에 나타난 특성을 유형, 문양, 용도, 직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고찰에서는 조선시대 관련 국내문헌

및 중국사서 등을 참고로 하여 금장식기법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실증적 고찰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유물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유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II. 금장식기법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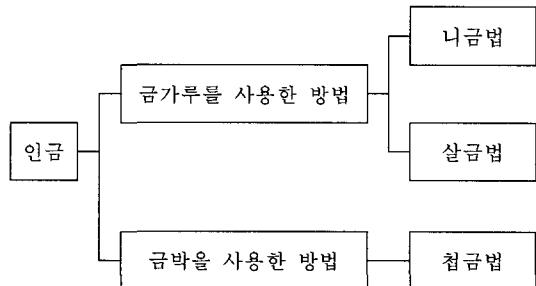
복식유물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기법에는 인금, 직금, 금사자수 등의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금

인금은 금가루 및 매우 얇은 금박을 접착제와 함께 사용하여 직물표면에 문양을 표현하는 공예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하는 방법 중 비교적 초보 단계의 간단한 방법이며 중국에서는 한대에 이미 이런 기법이 있었으며<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직금 제작기술 및 금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직금의 대용품으로도 제작되었다.

인금은 금가루를 사용하는 방법과 금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sup>3)</sup>〈표 1〉.

〈표 1〉 인금의 유형분류



#### 1) 니금법(泥金法)

아주 고운 금가루나 은가루를 접착제와 잘 반죽한 후 미리 도안에 따라 조각해 놓은 목각판에다 이것을 솔로 칠해서 직물에 찍어 무늬나 윤곽을 만든 다음, 무늬 내부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소금법, 쇄금법(銷金法)이라고도 한다.

니금법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된 인금의 기법으로 조선시대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당, 송대에 주로 사용된 방법이다.

## 2) 살금법(撒金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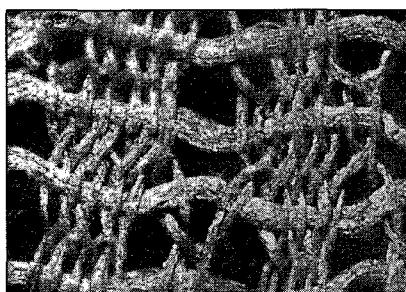
형지(型紙)나 목각판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직물에 도포한 후 금가루를 뿌리면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만 금가루가 붙게 되는데 붙인 후에는 잘 눌러 금가루를 직물에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에 비해 문양의 선이 비교적 거칠며 번쩍번쩍하는 입체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금색은 비교적 짙은 편이다<sup>4)</sup>.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된 기법이며 중국에서는 송, 원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금박 직물 유물 중 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하얀 색의 접착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살금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그림 2〉는 제작법이 비교적 복잡한 라직물에 금가루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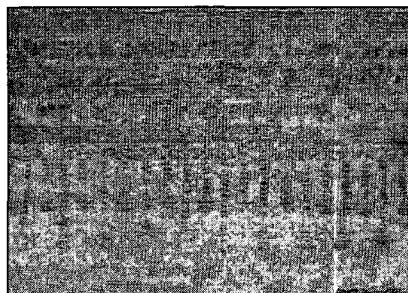
〈그림 1〉 금가루 사용한 문라  
(수덕사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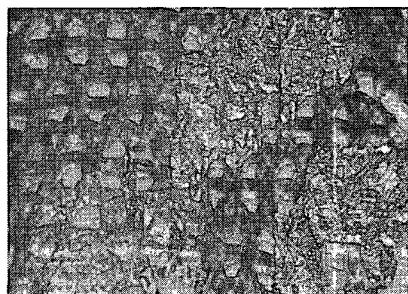
〈그림 2〉 금가루 사용한 문라조직  
(수덕사 소장품)

## 3) 철금법

금을 얇은 금박으로 만들어 직물에 붙이는 방법으로 먼저 문양이 조각된 판으로 접착제를 도장 찍듯이 직물에다 찍어 도포한 뒤 접착제가 마르기 전 그 위에 금박을 올리고 잘 눌러 붙인다. 금박이 잘 접착된 후 금을 털어내면 접착제가 붙어 있지 않았던 부분의 금박이 탈락되어 직물에는 금문양이 남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된 인금법이며 현재까지도 전수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런 방법은 관모, 장신구, 과대류 등의 금속소재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림 3〉 금박 사용한 문라  
(문수사 소장품)



〈그림 4〉 금박 사용한 문라조직  
(한국직물오천년, p. 311)

국내 현존하는 최초의 금박 복식유물은 고려시대 것으로 문수사 소장품과 아미타불 복장유물이 있으며 〈그림 3〉~〈그림 4〉, 그 외는 조선후기의 유물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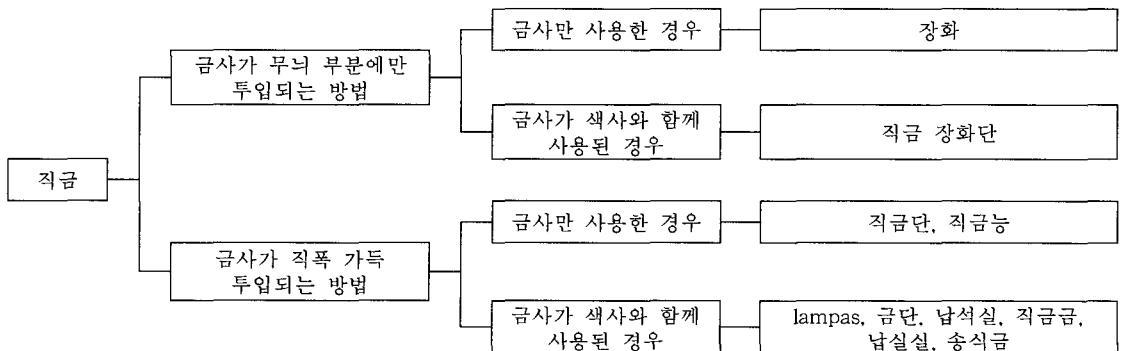
〈표 2〉는 인금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흥덕왕 복식 금제에 오두풀

및 육두품 여자의 의복에 금 은니를 금한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인금은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의복의 장식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려시대에서도 금, 은니는 발전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비교적 많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은은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니므로 수출을 금하고 사치품 목으로 사용을 억제하자는 기록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는 금, 원대에 크게 발달했으나 견뢰도가 낮은 단점 등으로 인해 그 후에는 직물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칠기품 등 일용품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의복에는 직금, 자수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sup>5)</sup>.

〈표 2〉 인금에 관한 국내 문헌기록

시대	내용	출처
통일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두품 5두품 여자의 衣에 금니를 금함.</li> <li>6두품 5두품 여자의 단의, 배당, 표에 금은니를 금함.</li> </ul>	삼국사기 홍여왕 복식금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영공장 중 장야서에 금박장과 은박장이 있음.</li> <li>쇄금홍라, 쇄금홍매화라 등을 송나라에 보냈음.</li> <li>쇄금용봉문능, 쇄금용봉문라 등에 관한 기록이 있음.</li> </ul>	고려사 권 124 열전 37 고려사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박장이의 견습생을 두어 결원이 생기면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함.</li> <li>금박, 은박 등을 진상하기 위해 사들임.</li> <li>금박 5만장을 왕에게 바침.</li> <li>금박장이 중국에서 연금술을 배워올 것인지를 대해 논의함.</li> <li>금은이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 중 금은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음.</li> <li>니금 1냥중 등을 궁궐에 들이도록 함.</li> </ul>	조선왕조실록 세종 028 07 04 28(정묘)  조선왕조실록 세종 064 16 06 08(계축)  조선왕조실록 문종 003 00 08 25(병신)  조선왕조실록 성종 276 24 04 27(신유)  조선왕조실록 연산 037 06 03 16(경오)

〈표 3〉 직금의 유형 분류<sup>6)</sup>

## 2. 직금(織金)

직금은 기본 조직을 이루는 경, 위사 외에 별도의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화려하게 표현한 종조직 직물의 통칭이며 본 연구에서는 금사와 함께 색사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작방법에 따라 금사가 무늬부분에만 투입되는 경우와 직물 폭 가득 투입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금사만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와 금사와 색사를 모두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표 3). 견뢰도가 낮은 인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작에 의해 장식하는 직금기술이

〈표 4〉 직금의 유형별 발달 시기<sup>7)</sup>

직금의 유형	시대 및 연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당					연					명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청					
금사가 무늬부분에만 투입되는 장화기법(brocade)	●	●	●	●	●	●	●	●	●	●	●	●	●	●	●	●	
금사가 직폭 가득 투입되는 직금단, 직금능		●	●	●	●	●	●	●	●	●	●	●	●	●	●	●	
금사가 색사와 함께 직폭 가득 투입되는 lampas 등			○	○	○	●	●	●	●	●	●	●	●	●	●	●	

○ 중국에서만 발견, ● 한국 중국에서 모두 발견, ● 한국 중국에서 모두 발달

발달하였으며 직금법(織金錦), 금사금(金絲錦), 납석실(納石失), 납적사(納赤思), 송식금(宋式錦), 편지금(遍地金), 고금(庫金)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표 4〉는 직금의 유형별 발달 시기를 살펴본 것이며 금사가 무늬부분에만 투입되는 장화기법에서 금사가 직폭 가득 투입되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 1) 금사가 무늬부분에만 투입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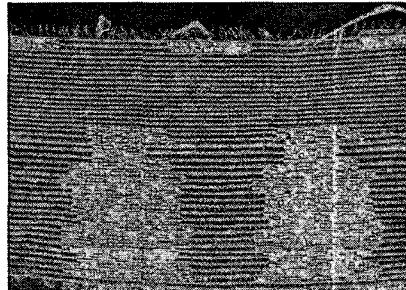
문직물의 바탕조직에 문위사인 금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표현할 때 무늬를 나타내는 금사가 한 쪽의 식서에서 반대편 식서로 연속되지 않고 문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에서만 문위사를 짜 넣어 부분적으로만 중조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문양 끝에서 문위사를 잘라버리는 통경단위(通經斷緯)방법<그림 9>~<그림 11>과 문양의 끝에서 위 혹은 아래로 문위사를 돌려 넣는 봉취적, 철직의 통경회위(通經回緯)방법<그림 5>~<그림 8>이 있다.

서양에서는 브로케이드(brocade)기법이라 하고 중국 및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장화라고 하며 바탕조직에 따라 장화사, 장화라, 장화단, 장화주 등의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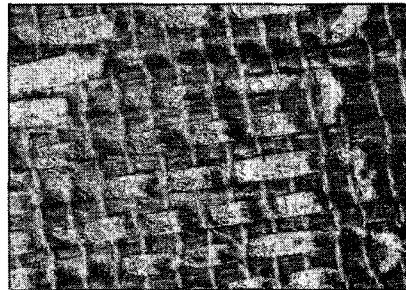
#### (1) 금사만 사용한 경우

문직물 중 문위사를 사용하여 바탕조직 위에 무늬를 표현할 때 무늬를 짜는 위사에 금사만 사용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러한 조직

의 유물이 있으며 통경회위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그림 5>~<그림 6>.



〈그림 5〉 장화사(통경회위기법)  
(한국 직물 오천년, p. 260)



〈그림 6〉 장화사 조직  
(한국 직물 오천년, p. 261)

#### (2) 금사가 색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유물이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비교적 많은 유물을 찾을 수 있다. <그림 7>~<그림 8>은 현재 경남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유물로서 탁의(卓衣)에 사용된 직물이며 이것 역시 통경회위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림 7〉 직금 장화단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그림 8〉 직금 장화단 뒷면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 2) 금사가 직물 폭 가득 투입되는 경우

문직물의 바탕조직에 문위사인 금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표현할 때 무늬를 나타내는 금사가 한 쪽의 식서에서 반대편 식서로 연속되는 상태로 직물 폭 가득 투입되어 종조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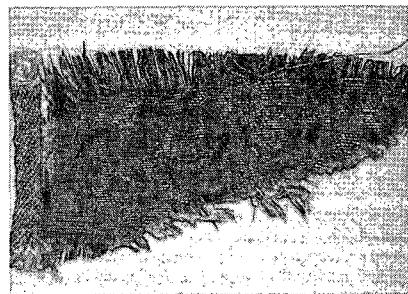
### (1) 금사만 사용한 경우

평직, 능직, 주자직의 바탕 조직에 문위사인 편금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표현한 직물이며 부가문위사 위중조직직물이라고도 한다. 직물의 뒷면에는 금사가 식서에서 식서까지 직물 폭 가득 투입되어 있으며 이때 금사는 조직되어 있지 않고 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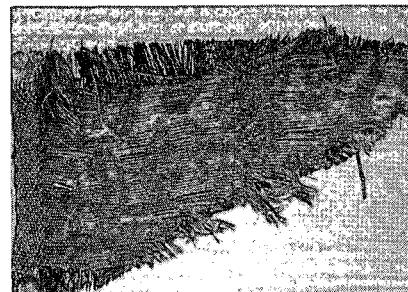
이 때 사용된 편금사는 어린 양의 가죽 또는 종이를 얇게 만들어 그 표면에 금박을 입혀서 실처럼 조각을 잘라서 만들었다. 금박은 너무 얇아서 제작 할 수 없으므로 금사를 보강하기 위해 양피 혹은

종이 등의 물질에 금박을 붙여 가늘게 잘라서 만든 편금사를 이미 제작한 직물의 위사 사이에 넣어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직물 중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그림 9〉~〈그림 11〉,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한 유물이 다수 있다. 중국에서는 요대에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금대 및 원대에 크게 유행했다.



〈그림 9〉 직금능  
(한국직물오천년, p. 234)



〈그림 10〉 직금능 뒷면  
(한국직물오천년, p.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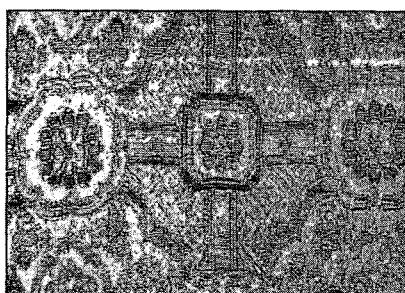
〈그림 11〉 직금능 조직  
(한국직물오천년, p. 235)

## (2) 금사가 색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

직금류 중 가장 복잡한 조직이며 바탕조직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지경사와 지위사 외에 문양을 제작하기 위한 문양위사(금사),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별경사가 투입되는 중조직 직물이다. 이때 별경사는 전문적으로 문위사를 조직시키기 위해 있는 것으로 몇 올의 위사 사이에 한 올씩 배열되어 있으며 지경사와 다른 색상이다. 문위사는 문양부분에서만 직물 위로 드러나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직물 뒷면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 문위사는 별도로 정경된 별경사에 의해 조직되어 문양 뒷면에서 문양위사가 뜨거나 조직위사가 뜨는 단점이 없는 비교적 고난이도의 제작기법이다. 바탕 조직에 따라 지경사와 지위사가 평직 혹은 능직이면 금으로 분류하고 주자조직으로 제작되었으면 금단으로 분류한다<sup>8)</sup>.

별도의 경사로 조직되므로 별결금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특결금이라고도 한다. 그 외 원대의 납석실, 직금금과 명, 청대에 유행한 송식금 등의 직물 또한 모두 이러한 조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직물은 금사 외에 색사까지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고 있어 매우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13세기에 처음 출현했으며 원대 유물 중에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그 후 명, 청 시대에는 더욱 크게 유행했다.

〈그림 12〉~〈그림 14〉는 탁의에 사용된 금단직물로서 문위사에 금사와 색사가 함께 사용된 매우 화려한 직물이다.



〈그림 12〉 금단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그림 13〉 금단 조직 확대도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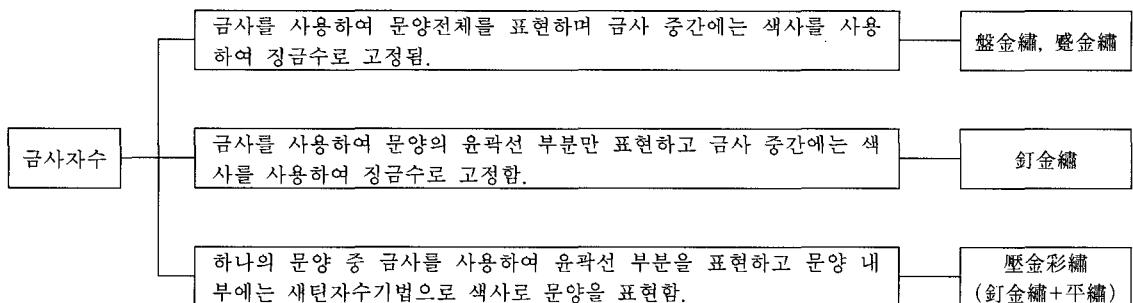
〈그림 14〉 금단 뒷면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 3. 금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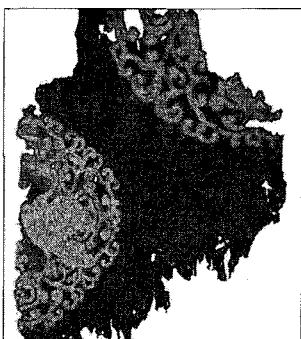
고구려시대 이미 공공모임에는 자수의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0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징금수로 연화문 및 아기 동자의 형태를 자수한 수라향낭이 발견되었다<sup>9)</sup>. 그리고 〈고려도경〉에도 부인들의 의복에 자수를 흔히 사용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유교사회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규방 문화 속에서 자수기법이 꾸준하게 발달했다.

자수는 다양한 색실을 사용하는 것 외에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하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금사를 사용한 금사자수를 언급하고자 한다. 금사자수는 직물을 제작한 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2차적으로 장식한 기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기법으로 장식한 경우를 말한다. 금사자수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금사자수의 유형분류<sup>10)</sup>



자수에 사용된 금사는 연금사가 대부분이며 한 가닥 혹은 두 가닥의 실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 스티치를 고정하면서 직물위에서 가는 실에 의해 묶여 있는 정금수기법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금사와 함께 사용되는 색사는 대부분 새틴자수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15〉 盤金繡, 鎏金繡  
(遼代絲綢, p. 125)



〈그림 17〉 壓金彩繡(釘金繡+平繡)  
(遼代絲綢, p. 129)

### III. 금 장식기법에 나타난 특성

조선시대 복식유물 중 직물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82점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 장식기법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실증 자료는 출토복식자료와 소장자료를 사용했으며 내역은 〈표 6〉과 같다.

금 장식기법을 사용한 복식유물은 출토복식 자료(29.27%)보다 소장자료(68.29%)에서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출토복식자료는 일반 양반 가의 복식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소장자료는 왕가의 복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출토복식에서는 금장식기법이 잘 보존될 수 없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출토복식자료는 조선전반기에 속한 반면 소장 자료의 대부분은 조선 후반기의 비교적 근래의 유물인 점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7~18세기 금장식 유물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임진,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으면서 일



〈그림 16〉 釘金繡  
(遼代絲綢, p.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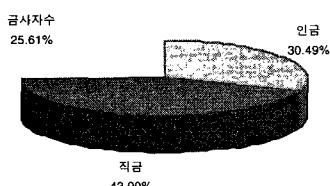
〈표 6〉 금 장식기법의 실증자료 내역<sup>11)</sup>

시기 출처	15~16세기	17~18세기	19~20세기	소계
출토복식자료	평산신씨, 파평윤씨, 은진송씨, 청주한씨, 원주원씨, 심수륜, 단양 우씨 유물 22점	안동권씨 유물 1점	화성출토유물 1점	24점 (29.27%)
소장자료	-	화순옹주, 이단하부인 유물 2점	영왕, 영왕비, 덕온공주, 조대비하사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54점	56점 (68.29%)
출처미상	-	2점	-	2점 (2.44%)
소계	22점(26.83%)	5점(6.10%)	55점(67.07%)	82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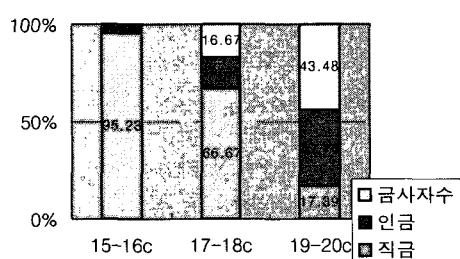
시적으로 복식의 사치가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유형별

장식기법의 유형비를 살펴보면 직금(43.9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인금(30.49%), 금사자수(25.61%)의 순서이다〈그림 18〉.



〈그림 18〉 장식기법의 유형비



〈그림 19〉 시기별 장식기법의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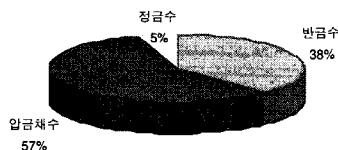
시기별로 장식기법 유형비를 살펴보면 15~16세기에는 직금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지만 이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 반면 조선 전반기에는 자수와 인금의 비중이 매우 낮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며 19~20세기에는 직금의 비중보다 인금과 자수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19〉.

본 연구에서 조사한 15~16세기의 유물은 모두 출토복식자료이며 19~20세기 자료의 대부분은 소장자료이다. 출토복식자료는 소장자료에 비해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는 조선초기부터 금박장인을 두어 금박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sup>12)</sup> 조선초기부터 금박을 복식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직금에 비해 인금은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으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인금방법에 의해 부착된 금분은 떨어져 나가기가 쉬우며 출토유물 중 발견된 인금유물은 세척 등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훼손되는 예도 있다. 그리고 인금으로 장식한 의복이 세탁을 하면 금분이 쉽게 떨어져버리는 등 비실용적인 점이 있어서 한층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금기술이 발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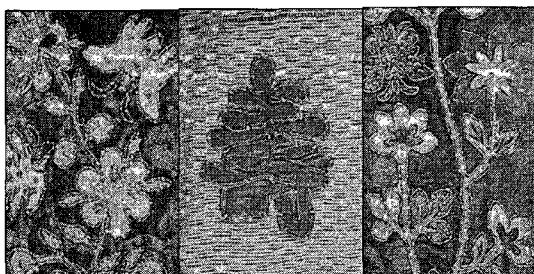
그리므로 금박기술은 직금기술보다 비교적 일찍 발달했지만 실증적 조사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의복에서는 금박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후기의 소장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직금은 금사가 직물 폭 가득 투입되는 경우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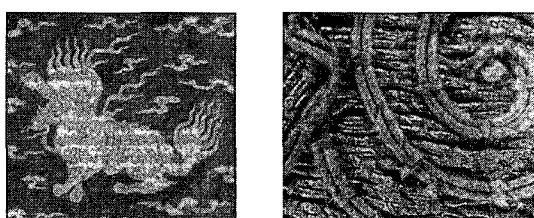
뇌부분에만 투입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물을 직접 고찰하지 않고 의복사진을 중심으로 고찰했기 때문에 금사가 어떤 형태로 투입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직금 중에는 색사와 금사를 모두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 종류도 있으나 복식유물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유물 모두 금사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0〉 자수기법의 유형비



〈그림 21〉 암금채수가 사용된 예  
(자수문양, p. 130, p. 131, p.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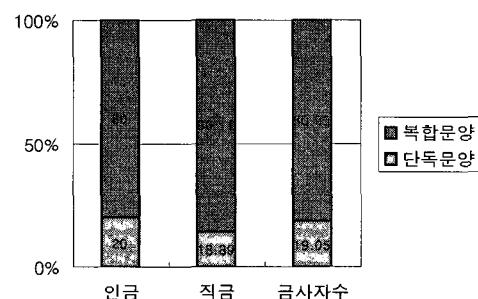
〈그림 22〉 반금수 및 정금수가 사용된 예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203)

금사자는 조선후기 소장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문양의 가장자리에는 금사를 사용하여 징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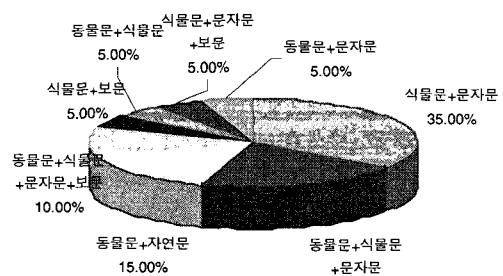
수를 놓고 문양의 내부는 새틴자수기법으로 채우는 암금채수 기법이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정금수, 반금수 등이 사용되었다(그림 20)~(그림 22)

## 2.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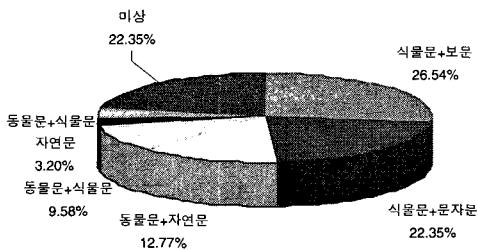
금장식 기법이 사용된 복식유물 중 직물에 나타난 문양은 한 가지 문양만 사용된 단독형과 2~3개의 다른 문양들이 조합되어 사용된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금, 직금, 금사자수 기법에서 모두 복합형의 비중이 단독형의 비중 보다 높으며(그림 23), 단독형 중에서는 문자문양과 식물문양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복합형 중에서는 식물문양+문자문양, 식물문양+보문양, 동물문양+자연문양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그림 24)~(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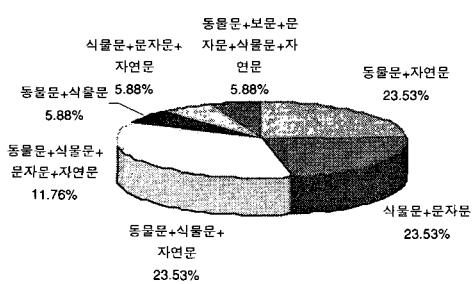
〈그림 23〉 장식기법별 단독문양과 복합문양의 유형비



〈그림 24〉 인금에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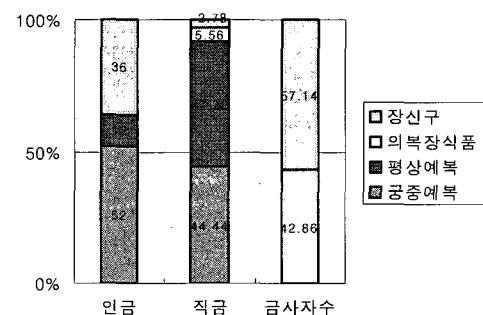
〈그림 25〉 직금에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비



〈그림 26〉 자수에 사용된 복합문양의 유형비

기 궁중예복에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27). 인금은 다른 장식기법에 비해 세탁견뢰도가 낮아서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궁중 예복류를 장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금은 궁중예복(44.44%) 및 평상예복(47.22%) 등의 의복류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사자수는 의복 장식품 및 장신구에 대부분 사용되었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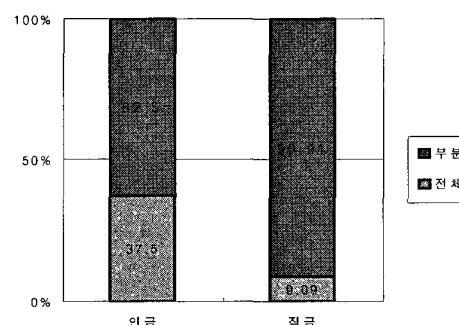
〈그림 27〉 장식기법별 용도비

### 3. 용도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복식유물을 의복, 의복장식품, 장신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이 시기 금은 일반인에게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금을 의복에 장식할 수 있는 신분은 귀한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용도 또한 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즉 궁중예복 및 평상예복 등의 의복에 사용된 경우가 59.76%이며 그 외는 장신구(26.83%), 의복장식품(13.41%)에 사용되었다.

인금의 경우는 당의, 대란, 스란치마 등의 궁중예복(52%), 삼회장저고리 등의 평상예복(12%), 기타 장신구(36%)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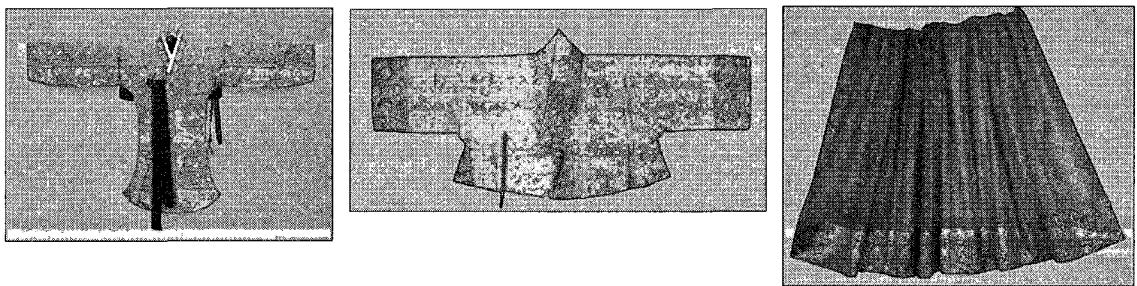


〈그림 28〉 장식기법별 의복의 전제:부분의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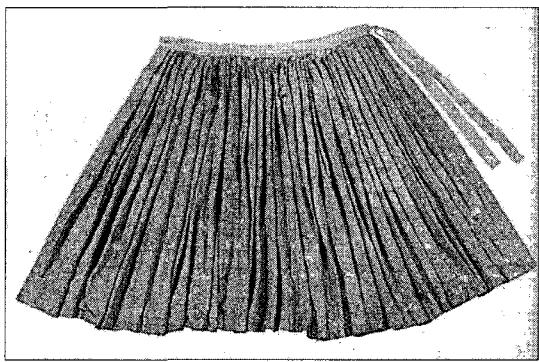
〈표 7〉 금 장식기법이 사용된 용도

용도	장식기법 유형		인금	직금	금사자수	소계	
	의복	의복장식품				전체	소계
의복	궁중예복	평상예복	13점	16점	0	29점	49점 (59.76%)
의복장식품			3점	17점	0	20점	11점(13.41%)
장신구			9점	1점	12점	22점	22점(26.83%)
소 계			25점(30.49%)	36점(43.90%)	21점(25.61%)	82점	82점(100%)

의복에 금장식이 사용되었을 때는 의복 전체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다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 즉 인금의 경우는 의복전체에 사용된 경우가 37.5%, 의복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62.5%였으며, 직금의 경우는 의복전체에 사용된 경우가 9.09%, 의복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90.91%로 월등하게 많다〈그림 28〉. 금장식은 저고리, 원삼, 당의를 비롯한 상의류에서는 구성선을 따라 깃, 끝동, 셀, 결마기, 어깨부분, 단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치마를 비롯한 하의류에는 치맛단 등을 장식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9〉.



〈그림 29〉 금장식기법이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  
(한국직물오천년, p.255, p.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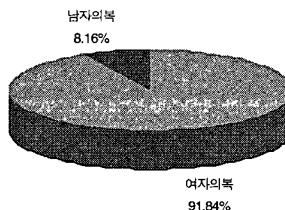
〈그림 30〉 금장식기법이 의복전체 사용된 예(금선단치마 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p.30)

〈그림 30〉은 16세기 후기의 평산신씨묘에서 출토된 금선단 치마인데 치마 전체에 금사를 넣어 제작한 것으로 치마의 양 옆에는 다크를 접아서 앞, 뒷길이 차이를 두어 의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마에 금 장식기법이 사용되는 경우 치마단

부분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유물은 치마 전체에 직금이 사용되었으며 출토품 중 이런 예는 유일하다.

그리고 금장식기법은 의복장식품 및 장신구를 제외한 남녀 의복류 49점 중에서 남자의복(8.16%)보다 여자의복(91.84%)에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31〉.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사회 속에서 절제된 여성의 복식미를 의복 속에 표현하는 수단으로 화려한 금을 의복에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장신구 및 의복장식품까지 포함하면 성



〈그림 31〉 성별에 따른 용도의 유형비

별 유형비 결과에서 여성복식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 4. 직물

금 장식기법을 사용한 직물은 대부분이 견직물이며 모직물에 사용된 예가 한 점 있다〈표 8〉. 일반

견직물은 견, 단, 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는 주자직으로 제작한 단직물(28.0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조직의 직금류에서도 바탕조직이 주자직인 직금단의 비중이 높았다. 직금류에는 금사와 색사를 함께 사용한 예는 한 점도 없으며 모두 금사만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바탕조직이 주자조직인 단류에 인금, 직금, 자수 등의 금장식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복 소재 중 가장 고급 소재인 견직물 중에서도 가장 제작하기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태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인 단 직물에 화려한 금장식기법까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섬유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만든 펠트직인 전(氈)이 1점 있다.

조직 직물을 말한다. 제작방법에 따라 금사가 무늬 부분에만 투입되는 경우와 직물 폭 가득 투입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금사만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와 금사와 색사를 모두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인금이 가진 비실용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견고하게 제작에 의해 장식하는 기술이었다.

3. 금사자수는 직물을 제작한 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2차적으로 장식한 기법 중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기법으로 장식한 경우이며 이것은 문양의 내부에는 새틴자수법으로 채우고 윤곽선 부분에만 금사를 사용한 압금채수 기법,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의 윤곽선만 표현하고 금사 중간에 색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정금수 기법 등이 있다.

〈표 8〉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직물의 종류

직물의 종류		장식기법의 유형	인금	직금	자수	소계
견직물	일반직물	絹	1점	-	-	1점(1.22%)
		綾	9점	-	14점	23점(28.05%)
		紗	8점	-	3점	11점(13.41%)
	중조직직물	織金綾	-	32점	-	32점(39.02%)
		織金紗	-	4점	-	4점(4.88%)
모직물	氈	-	-	-	1점	1점(1.22%)
미 상		7점	-	3점	10점(12.20%)	
소 계		25점	36점	21점	82점(100%)	

#### IV. 결론

신분 상징성 및 장식성을 가진 금은 조선시대 복식유물 중 직물에 인금, 직금, 금사자수의 기법으로 다양하게 장식되었으며 유형, 문양, 용도, 직물로 구분하여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금은 금가루 및 매우 얇은 금박을 접착제와 함께 사용하여 직물표면에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금가루를 사용하는 니금법과 살금법, 그리고 금박을 사용하는 첨금법이 있다. 삼국시대 이후부터 계속 사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금 및 직금 제작기술의 부족 등으로 직금의 대용품으로도 제작되었다.

2. 직금은 기본 조직을 이루는 경, 위사 외에 별도로 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화려하게 표현한 중

4. 금장식기법의 유형비는 직금(43.9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인금(30.49%), 금사자수(25.61%)의 순서이다. 직금의 비중은 조선 전반기에 매우 높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낮아지는 반면 자수와 인금의 비중은 조선 전반기에 매우 낮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0세기에는 직금의 비중보다 인금과 자수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5. 금장식기법이 사용된 복식유물에 나타난 문양은 한 가지 문양만 사용된 단독형 보다 2~3개의 다른 문양들이 조합되어 사용된 복합형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이를 모두 식물문양과 조합된 예가 많았다.

6. 금장식기법은 궁중예복 및 평상예복 등의 의

복에 사용된 경우(59.76%)가 장신구(26.83%), 의복 장식품(13.41%) 보다 훨씬 많으며 인금은 궁중예복에 많이 사용되었고 직금은 궁중예복과 평상예복에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금장식 기법은 의복의 전체에 사용되기 보다는 깃, 셀, 끌, 동, 결마기 등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다.

7. 금 장식기법을 사용한 직물 중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직물이며 이 중에서도 가장 제작하기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태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인 단직물에 사용된 예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장식기법의 유형을 고찰하고 조선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중국의 각 시대 및 고려시대 및 삼국시대의 유물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국가와 시대별 금 장식기법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김원용 (1991). *스카타이황금 -스카타이족과 그 미술-*. 서울: 조선일보사, p. 292.
- 2) 趙評春, 趙鮮姬 (2001). *金代絲織藝術*. 北京: 科學出版社, p. 73.
- 3)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p. 314.
- 4)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p. 26.
- 5) 高漢玉 (1986). 앞의 책, p. 26.
- 6) 趙豐 (1999). *織纏珍品*. 芝紗堂 服飾出版, p. 180.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辭書出版社, pp. 514~516, p. 665, p. 669.
- 7) 趙豐 (2004). *遼代絲綢*. 香港: 沐文堂美術出版社有限公司, p. 260.
- 8) 趙豐 (1999). 앞의 책, p. 180.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앞의 책, pp. 514~516, p. 665, p. 669.
- 9) 趙豐 (2004). 앞의 책, p. 260.  
包銘新, 趙豐 (1997). *中國織繡*. 上海書店出版社, pp. 42 ~43.
- 10) 何堂坤, 趙豐 (1998). *中華文化通志 제 7편 紡織与鑄治志*. 上海: 人民出版社, p. 154.
- 11) 權英숙 (2000). *月精寺八角九層石塔發見繡羅香盒叢小考*.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12) 趙豐 (2004). 앞의 책, pp. 123~125.

趙豐 (1999). 앞의 책, p. 344.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앞의 책, p. 670.

- 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한국의 문양 디자인* II 자수문양. 서울: 대원사.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윤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종합연구집 II.
- 고부자 (2002). *조선시대 피룩(직물)의 무늬*.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복식 2천년*. 서울: 신유.  
국립중앙박물관 (1988). *한국의 미*. 서울: 통천문화사.  
김영숙 (2002). *조선조 후기 궁중 복식 -영왕 복식 중심*. 서울: 신유.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1983-2002). *한국복식 1호-20호*.  
심연옥 (2002). *한국 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구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우리옷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 12)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1995). *국역 조선왕조실록* 증보판. 서울시스템주식 회사, 세종 028 07 04 28(정묘), 성종 276 24 04 27(신유)